-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경: 시편 73편 28절

## Tag: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 73:28)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해가 됩시다.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합시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는 잘 모른다.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 1.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 -쇼핑중독
- 2. 더 높은 지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 -명예욕, 1등
- 3. 더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몸매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 요즘
- 4.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면서 행복을 누린다.
- 5.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생활, 탐구생활, 예술활동, 탐닉을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 자기만족
- 6. 사랑하는 사람과 다정한 일상을 보내면서 행복을 누린다. 사랑.
- 7. 세상의 악한 것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쾌락을 탐닉하면서 행복을 누린다. 갑질
- 8. 자연을 벗 삼아, 산과 바다와 들로 여행을 하고, 맛 기행을 하면서 행복을 누린다. 자연인.
- 9.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의 나

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행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사람

사실 9번이 가장 이상적인 답이며 7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차적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다면 거의 완벽한 행복이지 않을까?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형통하는 죄인에 대한 질투가 가득하다.

- 2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 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 음이로다
  - 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 5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 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 7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 8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 하며
- 9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 다
- 그러나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깊이 깨닫게 된다.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서 세속적인 것들이 행복인줄 알았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하니, 그들의 결말과 비참을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자. 세속적인 눈과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에 속지 말자. 그런 것들은 참 행복이 아니다. 돈을 침대는 살 수 있으나, 꿀잠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세속적인 가치로 미인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의 사랑을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결코 잊지 말자.

다른 차원의 것이다.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

우리가 오래도록 불렀던 시인 송명희

"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녀처럼 고통받아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갈수 있고, 문을 두드릴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 73:28)

2019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면서 승리하며 살자! 아멘.